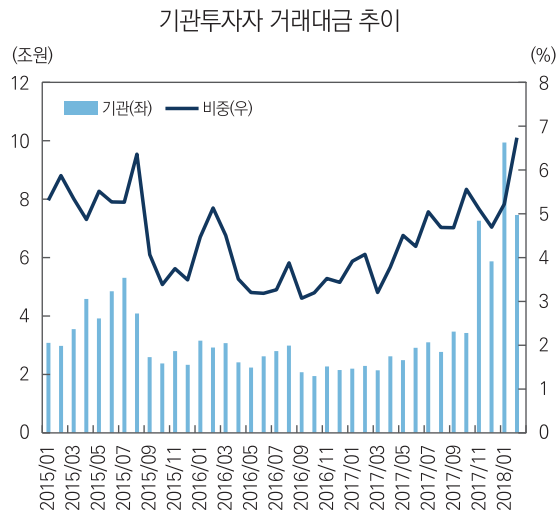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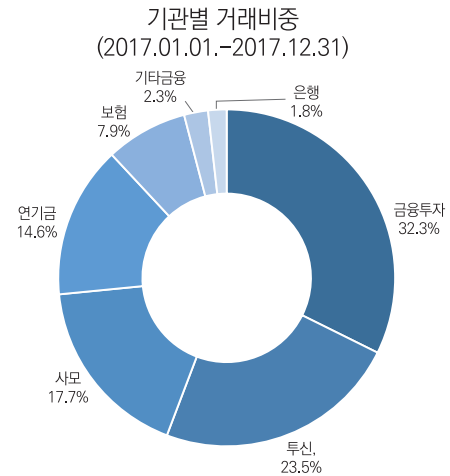
새 통합주가지수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 최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통합주가지수인 KRX300지수를 도입
 - KRX100 등 기존의 통합주가지수는 코스닥 종목의 편입 비중이 낮아 통합된 주식시장의 대표지수로서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합주가지수의 필요성이 대두
 - KRX300지수 발표 후 관련 인덱스 펀드 및 ETF, 선물 등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KRX3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통합지수 벤치마크로서의 활용이 기대
-
- 최근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 300종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KOSPI·KOSDAQ 통합주가지수인 KRX300을 개발하여 발표
 -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에서 신규 벤치마크 지수로 KOSPI·KOSDAQ 통합지수 도입에 대해 언급하였고, 거래소는 2월 5일 KRX300지수를 출시
 - KRX300지수는 3월 현재 코스피 237개 종목과 코스닥 68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가총액 규모는 약 1,500조원으로 전체 주식시장의 약 81.5%의 비중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산업별로 일평균시가총액 및 일평균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총 300종목을 선정
-
- 새로운 통합주가지수 도입은 기관투자자의 코스닥시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연기금 등의 대규모 기관투자자가 자금운용시 필요한 코스닥시장 대상 벤치마크가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을 배경으로 함
 - 코스닥시장은 출범 이후 상장기업 수 증가 및 시가총액 규모 확대 등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유동성 부족과 같은 문제로 여전히 시장 경쟁력이 약하고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
 - 현재 코스닥시장은 개인투자자가 대부분이며, 지난해 말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기조에 힘입어 기관투자자 거래비중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지만, 2월 기준 전체 거래규모 대비 6.7%로 여전히 낮은 상황
 - 2017년 1년 동안 기관별 거래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투자회사가 32.3%로 가장 높고 연기금은 14.6%의 수준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현황



자료: KOSCOM



-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코스닥시장에 대한 벤치마크 지수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코스닥 상장주식을 포함한 통합주가지수의 필요성이 대두
 -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는 내·외부 위탁운용시 성과를 평가할 때 자산에 대한 벤치마크가 필요한데 펀드 및 연기금의 벤치마크로는 주로 KOSPI나 KOSPI200지수가 사용되어 코스닥 종목에 대한 적합한 벤치마크가 없는 실정
- 기존의 통합지수인 KRX100과 KTOP30이 존재하지만 코스닥 종목의 비중이 낮으므로 KOSPI200지수와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지수로서의 대표성 부족
 - KRX100과 KTOP30의 코스닥 종목은 각각 8종목, 1종목 뿐이며, 관련 금융상품도 각각 11개, 7개에 불과

국내 통합주가지수 현황

	KRX300	KRX100	KTOP30
발표시점	2018.02.05.	2005.06.01.	2015.07.13.
코스닥 종목 개수	68종목(22%)	8종목(8%)	1종목(3.3%)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 비율	9.6%	1.2%	0.3%
시가총액 규모 (전체 주식시장 대비 비율)	1,575조원(81.5%)	1,223조원(63.3%)	1,163조원(60.2%)
관련 금융상품	인덱스 펀드 7개	ETF 2개 인덱스 펀드 9개	ETF 2개 ETN 3개 인덱스 펀드 2개

주 : 2018년 3월 12일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 해외에도 소속 시장이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지수가 존재하는데 미국의 S&P500, 유로지역의 StoXX EUROPE600, 일본의 JPX-Nikkei400 등이 대표적임

- S&P500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벤치마크 지수로 NYSE와 NASDAQ의 종목이 혼합
 - NASDAQ 종목의 편입비중이 1997년엔 36개에서 2001년에는 71개, 2018년 현재 127개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통합지수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지수로 평가
- StoXX EUROPE600은 현재 유럽지역 16개 국가의 거래소 상장 주식으로 구성
 - 유럽지역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시장을 대표하는 벤치마크
- JPX-Nikkei400지수는 주시장 뿐 아니라 Mothers, JASDAQ 상장 기업 구분 없이 우량기업을 선정하여 편입시키며 시가총액 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

해외 통합지수 현황

	S&P500	StoXX EUROPE600	JPX-Nikkei400
도입시기	1957.03.04	1998.06.15	2014.01.06.
구성종목	NYSE 375 NASDAQ 127	London 165, EN Paris 89, Xetra 77, SIX Swiss Ex 49, Stockholm 43, BrsaItaliana 32, EN Amsterdam 31, Soc.Bol SIBE 27, Copenhagen 21, Helsinki 17, EN Brussels 15, Oslo 12, Dublin 9, Vienna 7, EN Lisbon 4, Prague SE 2	JPX 396 JASDAQ 3 Mothers 1
시가총액 규모 (전체 주식시장 대비 비율)	24.8조달러 (90.7%)	19.2조유로 (90.1%)	493.8조엔 (85.2%)

주 : 2018년 3월 13일 기준

자료: Bloomberg

□ KRX300지수의 도입은 향후 KOSPI·KOSDAQ 시장을 대표하는 통합지수 벤치마크로서 활용되고 연계 상품이 개발되면 코스닥 종목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인이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코스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KRX300지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단일지표로서 주식시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벤치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지수 출범 한달만에 7개의 인덱스 펀드가 출시되었고, 관련 ETF 및 선물도 상장 예정으로 KRX3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코스닥 편입종목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
 - 2월 8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출시한 펀드를 시작으로 KRX300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약 437억원의 규모로 설정

선임연구원 홍지연